



3면

아린, 국방부 '홍범도'홍상 이전 시도 비판

# 전주매일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음 7월 14일) 제33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공세 멈춰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민이 납득할

검증으로 사태의 본질 규명해야” 주장

“전북에 예산상 불이익 있어선 안돼” 입장도

전북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 책임론에 근거를 삼는 감사나 검찰이 아닌,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검증으로 사태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전북에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단도 분명히 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행사 준비 과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사실관계에 입각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겠지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도에 전가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전북도를 겨냥한 집중 감사와 국정조사 등은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러한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다기보다는 꼬리 자르기식 책임설정이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전북도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모양새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또 “여당이 나서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를 포괄 삼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파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철저히 재조사·검증해야 할 것”

이라며 “다시는 이런 허탈감과 상처가 국민과 전북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낙후된 전북에 또다른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입장도 내놨다. 의장들은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이 각종 예산 지원에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점 역시 재고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북은 수도권이나 영남·충청권에 비해 매우 낙후된 곳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곳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번 행사의 파행을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전북은 지금보다 발전은커녕 더욱 낙후된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역균형발전 또한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지역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28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공)

##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 공모 선정

도-KIST-전북대 컨소시엄, 5년간 국비 112억5000만원 확보

이차전지 분야 융복합형 공동연구 통한 신기술 개발 등 추진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연구개발 혁신밸리 협의체 운영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대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1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가중과 지역혁신 핵심주체(기업·대학·연구기관)들의 지역이탈 가속과 극복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혁신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대 컨소시엄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경쟁력 및 적합성 분석을 통해 탄소복합소재, 탄소고분자소재, 이차전지, 이차전지 분석 등 기술개발 분야를 도출했고,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이 사전기획 과제로 4월에 선정돼, 3개월 간 본 사업을 기획해 최종

선정됐다. 학·연 협력 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을 주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의 기술혁신 역량과 전북대의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 육성, 에너지소재·부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창업 활성화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북도는 플랫폼 지원화를 위한 펀딩, 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등 정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수요기반 탄소융·복합소재 및 이차전지 분야 융복합형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대 산학연 융합학과 개설 및 공동 학위과정 운영으로 취업연계 실무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연구개발(R&D) 혁신밸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대 연구개발(R&D) 성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 구축 및 특화산업 성장을 지

원한다. 전북도는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성장모델을 확산한 계획이다.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전북대는 공동으로 산학연융합과제, 학연교수제(2021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학·연 플랫폼은 산·학·연·관 등 지역의 핵심주체를 직접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성장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도 역점사업인 탄소복합소재산업·이차전지산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지역혁신의 허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도,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대출금리 중 2% 지원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

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ai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방식이 현장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뀐 것에 대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에로호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도민체전, 내달 1일

김제서 ‘팡파르’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김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8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도민체육대회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김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 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39개 종목(정식종목 37개, 시범종목 2개)이 열리며 도내 14개 시군 선수와 임원, 관중 등 2만 5,000여명이 참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앞서 민속경기와 소프트테니스 유도, 줄다리기 등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로 치러졌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제27회

무주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전북도, 무주반딧불축제재정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민속문화원, JT, 전북문화재단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